



#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씩씩한어린이집 7세들이 대구미술관 강사로 계시는 아마 덕분에 즐거운 미술체험을 하고 왔어요. 만든 말들 이름도 지어주고, 이야기도 만들었대네요. 우리 아이들의 고사리손으로 새로 태어난 말들의 이름은 이쁜이, 돌돌이, 바람돌이, 점박이 들이라는군요.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29  
들살이후기/33  
게릴라인터뷰/35

날적이 톺아보기/38  
편집후기/39

# 2012.12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나누며 사는 사회

아이들의 해맑은 꿈과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1995년 8월에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뒹굴고 놀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삶의 놀이터'이자  
'열린 공동체'가 바로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과 '해바라기 방과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64-6  
053-791-6879(씩씩한 어린이집)  
053-793-6879(해바라기 방과후)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 산삼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세상)

성경훈(씩씩한 성도연 아빠)

늦은 시간 동곡막걸리집. 안주로 시킨 어묵탕은 식은 지 오래인데 술을 더 시킨다. 별 말없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분위기가 참 편하고 정겹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사람과 술을 마셔본 적이 잘 없지 않은가? 초저녁이면 주무시는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다. “얼음골 사과 보냈는데 받았나? 아직 집에 안 들어 갔는갑제? 뭘 그리 유난스럽게 아를 키우노.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한다.”며 조금 섭섭한 내를 풍기신다. 그러시겠지. 추석이후에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으니. 손녀는 어린이 집에서 맨날 논다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 바쁘다고 저러고 있으니 아버지는 그제 이상한 모양이다.

씩씩한 아이들은 논다. 매일 논다. 오늘은 씩터전 모래사장 옆 기슭에 몇 명이 쭈그리고 앉아 나무 밑을 열심히 파고 있다. 인터넷이 고장 난 터라 여러 가지 일이 밀려 있다. A/S기사와 잡은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하다.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보쳐서 차에 태웠는데 말라깽이 무언가를 보여준다. “이거 산삼이야. 내가 금방 캐어. 이거 아빠 주까?” 한다. 슬쩍 보니 그냥 나무뿌리다. 추운 날 쭈그리고 앉아 한참이나 파고 있던 것이 이거였구나. 이걸 왜

파 왔는지~ 참! 이게 산삼이라니~ 허~.

〈학교 마치고 오면 늘 아무도 없다. 판매들은 무얼 하는지 동네 공터도 텅 비어 있다. 집 옆에 이상한 식물이 보여서 나무꼬챙이로 파 보니 뿌리가 조금씩 드러나더니 이내 점점 굵어진다. 혹시 산삼인가? 그 후 며칠 동안 학교를 마치고마자 가방 던져두고 조심스레 나무꼬챙이로 팠다. 실뿌리까지 아주 조심조심. 해가 지고 어두워 질 무렵 드디어 산삼을 캐냈다. “아버지 제가 산삼을 캐어요. 이거 먹어요.” “어디서 이걸 캐왔노?” “집 옆에서 찾았어요.” “그래 목자. 근데 다음에는 캐지 말거래이.” 그날 저녁으로 우리 가족은 우렁처럼 생긴 산삼을 먹었다.〉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는 동안, 옆에서 산삼을 쥐고 냄새를 맡으며 누구에게 줄지 고민하는 아이를 보니, 아주 오래 전 집 옆에 심겨진 우렁을 산삼이라며 열심히 팠던 한 소년이 생각이 났다.

요즘 참 바쁘다. 공동육아를 한 후로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세상이 많이 변하여 이제는 아이들을 그냥 놀게 두는 것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할 일 없어 흙을 파고, 쌓고 부수고 노는 것이 이

제는 많은 노력으로 지켜야할 것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이미 유별난 부모가 되어 버렸다. 한 달에 한번 먹기 어려웠던 치킨을 시도 때도 없이 접할 수 있고, 나락농사를 망친다며 뽑아버리던 피를 발코니에서 화초로 키우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역사는 앞으로 갈 뿐 거꾸로 가지 않는다고 했던가? 문명이 발전하고 보다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세상.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해 졌는가?

세상에서 가장 자기와 닮은 한 아이를 통해 잊어버렸던 나를 기억하고 발견한다. ‘아이와 함께 커 가는 우리’

오늘 우리 아이가 캐온 산삼은 지난 날 호기심 많고 꿈 많았던 시절 한 소년. 바빠서 잊어버리고 묻어 두었던 과거의 나를 캐온 것이다. 그 나무뿌리 산삼을 차에 올리고 도연이 싣고 오늘 아침도 바쁘게 씹씩한으로 간다. **싹**

##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

# 씩씩한 어린이집 11월 교육평가, 12월 교육계획

조윤정, 노승복, 정현주, 황태순, 김지영, 정미향  
(체리, 나비, 아침, 벚꽃, 피터팬, 돌고래)

## 12월 교육계획

- 이 달의 주제 : 한해를 보내며
- 이 달의 세시와 절기 : 대설, 동지
- 이 달의 노래 : 김장, 동지팔죽, 하얀나라
- 전래놀이, 전래등요 : 팽이, 딱지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다리세기, 실뜨기. 춤대장, 이거리저거리각거리

### 하얀나라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나봐  
온세상이 모두 하얀나라였지 어젯밤 꿈속에  
썰매를 탔죠. 눈싸움 했죠  
커다란 눈사람도 만들었죠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나봐  
온세상이 모두 하얀나라였지 어젯밤 꿈속에

### 동지팔죽

동지팔죽 먹고 나이한살 더 먹자  
동지팔죽 먹고 나이한살 더 먹자

일 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  
동지팔죽 먹고 나이한살 더 먹자

일 년 중에 밤이 제일 짧은 날  
동지팔죽 먹고 나이한살 더 먹자

할머니도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동지팔죽 먹고 나이한살 더 먹자

온 집안에 구수한 팔죽냄새  
동지팔죽 먹고 나이한살 더 먹자

### ■ 교사회 일정

출근시간  
07:30 아침  
08:30 벚꽃  
08:40 영양교사(풀잎)  
09:00 체리  
09:30 피터팬  
09:50 나비

### ■ 교육 및 회의

- 3(월)~24(월) 보육교사 실습교육(3주)
  - 1(토) 아동안전관리직무교육(교사전원)
  - 4(화) 대구지역대표교사모임(아침)
  - 5(수) 장애통합평가회- 6시(벚꽃, 체리)
  - 8(토) 아동안전관리직무교육(교사전원)
  - 11(화) 지역대표자회의(아침)
  - 17(월)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
  - 23(금) 교사 긴 회의  
(※5시부터 아마 부탁 드립니다)
  - 28(금) 교사교육  
(※5시부터 아마 부탁 드립니다)
- \* 매주 금요일 혹은 목요일 주 점검 회의


(낮잠시간 이용)

졸업여행/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행사

11/30(금)~ 12/1(토) 터전 김장  
7(금) 임시총회  
19(수) 대통령선거일  
31(월)~ 1/4(금) 겨울방학

■ 전달사항

- \* 개인 이불과 베개세탁에 신경을 써 주세요
- \* 양치 컵과 칫솔 소독해 주세요
- \* 매일 아이들 바구니 살펴봐 주세요 

■ 12월 일정

	월	화	수	목	금
					30
1주	3 차 모듬 각 방 나들이 김영현생일 요리활동 (배추속냉기)	4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5 전체나들이	6 연령별 모임	7(대설) 연령별 모임 안전교육 닫기 모듬
2주	10 차 모듬 각 방 나들이  이서영생일	11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12 전체나들이	13 연령별 모임	14 연령별 모임 기본생활교육 닫기 모듬
3주	17 차 모듬 각 방 나들이	18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19 대통령 선거일  신차람생일	20 연령별 모임	21(동지) 연령별 모임 먹거리교육 닫기 모듬 요리활동 (새알심빚기)
4주	24 차 모듬 각 방 나들이	25 성탄절	26 전체나들이	27 연령별 모임	28 연령별 모임 소방교육 요리활동 닫기 모듬
5주	31 차 모듬 각 방 나들이				
메모	♥ 수요일 전체 나들이 장소는 날씨와 자연물의 변화에 따라 주차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도담방 돌아보기

정미향(씩씩한, 돌고래)

## ◎ 방구성원

4세 : 강유채, 홍서연, 김소현, 김영현, 김지오

교사로써는 짧은, 교육 아마로써는 긴 두 달이 지나간다. 딱 하루 남았다^^

익숙해지고 적응되어 간다 싶으면 그만 두시겠네..라며 말씀해 주신 나비 쌤 말이 맞네요.

많은 분들이 시원 섭섭하시나 물으신다. 시원하진 않고 섭섭한 마음이 더 크다. 공동육아 교사로써 준비되어 있진 않았지만 지내면서 느꼈던 뿌듯함의 끝이 아쉽고 익숙해지고 매일을 함께 지낸 아이들의 우습고 진지한 저들의 수다도 아쉽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알찬 시간들의 끝이 아쉽고 교사로써 교사회의 일원의 끝도 무지 아쉽다^^

아쉬움이 많으면 계속 하지 라고 물으시면.. 그러게요^^

두 달 동안의 느낌을 글로 공유하려니 혁..힘드네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과연 나의 아이들과 함께 터전 교사로써의 생활이 가능할까? 라는 걱정이 제일 컸었는데 두 달이 지나면서 내린 결론은 아이들에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였다. 공동육아의 가장 기본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내 아이와 함께 다른 아이를 돌보는 육아.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아마로써도 가장 멋진 참여의 경험이었던 것 같다. 물론 적응 하는

동안 하루 하루 도 닦는 경험이 필수이긴 했다^^ 터전의 아이들에게서 우리 아이를 보고 그들은 나를 통해 엄마를 봤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이 두 달의 짧은 시간 속에 전해졌을지....나의 입장과 다른 그대의 입장을 알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교사로 두 달을 지내면서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 고마웠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여러모로 도와주신 아마들 또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기다려준 윤아 소현이도 고맙다..(무슨 연말 시상식 수상 소감 같다^^)

## ◎ 도담방 아이들 수다

바람이 엄청 분다. 언니 오빠들이 터전 화분을 세우고 분주하다. 옆 교회에서는 국화꽃 화분이 바람에 넘어진다.

영현 : 바람이 화분 안 좋아 하나봐 돌고래 봐봐 자꾸 넘어져

왜 안 좋아해?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화분아 화분아 살려줘라

(아줌마가 화분을 제대로 세우고 있다. 창문에 매달려 부른다)

아줌마 아줌마 안들리세요?

(소리치더니 아줌마한테 물어 보러 간다고 잠바 가지러 갔다 온다)

영현 : 아줌마 왜 안 들이세요? 물어 볼 거야

유채 : 사랑해요 할 거야

영현 : 아니 아줌마한테 왜 안 들리는지 대답 안하는지 물어 보자

(만다라 하고 있는 언니들에게 )언니 걱정마 내가 물어 보고 올께..

(하며 돌이서 달려간 다)

점심 먹고 자유 시간에 만다라 하고 있는 유채 영현 차람

영현 : 유채야 어려워서 유채 못 하지?  
 유채 : 어려워도 할 수 있어. 봐봐 색깔 이쁘지  
 차람 : 돌고래 유채는 아직 어려서 그냥 연 필을 파란색이라 할 수 있어 그치  
 유채 : 아냐(새침해 진다)  
 영현 : 나 잘 그리지 유채야!  
 유채: 응 너 잘 그린다^^ 나 색깔 이쁘 지.

차람 유채 소현이가 영현이 그림 못 생겼 다 하니 영현이 뼈쳤다. 모두들 미안해 하고 사과해도 영현이 마음이 아프다며 마음을 안 푼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릴까 물어보니 도담방 음악 틀어 주면 춤추고 노래 부르면 풀린다 해서 노래 틀어줬더니 유채 영 현이 소리 지르며 달려온다^^

나들이 갔다 일찍 도착하니 아직 형님들 이 아무도 안 왔다. 1층 아래방으로 엄마 아 빠 놀이 한다고 콩닥콩닥 수다스럽다.

등장인물 : 지오-아빠, 소현-엄마, 유채,서 연,영현-아기  
 상황 : 엄마 아빠가 나무 블록으로 아이들 에게 컴퓨터, TV를 만들어 주고 로 보캡 풀리며 뽀로로를 보여주고 있 다. 아이들 TV시청중^^

지오 : 아기..뭐 보고 싶어?  
 서연 : 로보캡 풀리  
 지오 : 알았어 아빠가 틀어 줄께(하더니 네 모 블록으로 마우스처럼 움직인다)  
 서연 : 응(그리고 정말 보는 듯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며 보 는척한다)  
 지오 : 여보 여보!(블록 고르는 소현이를 부른다)  
 소현 : 왜 여보?(가져온 블록으로 유채 영

현이에게 컴퓨터를 만들어 준다. )

소현 : 아기..뽀로로 볼까? 그래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지오, 아기들에게 TV 많이 보면 안 되요 잔소리도 한다. 우리가 늘 하던 것 처럼^^)  
 지오 : 아빠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라(공 부하는척 한다 마우스를 움직이며)  
 소현 : TV 많이 보면 생각 주머니 작아진 다. 아기야 이제 그만 보자  
 (서연, 유채, 영현이 TV 보면서 계속 말하니)  
 지오 : 나도 말 좀 하자.  
 서연 : 내가 먼저 말 했다  
 지오 : 내가 말 할거야 시끄럽다고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지오 계속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서연 인 그래서 하면서 계속 얘기한다^^)

연못가 나들이 다녀 오는 길 연못 둑길로 걸어 오는데 바람이 불어 가을 나뭇잎이 허 공에 날아간다.

돌고래 : 나뭇잎 봐봐 나뭇잎이 하늘 날아 다니다.  
 영현 : 나뭇잎이 춤춘다  
 유채 : 와..나뭇잎이 춤춘다.  
 서연 : 나뭇잎이 춤추는거 아니거든 강. 유. 채!  
 돌고래 : 그래..? 서연이는 나뭇잎이 뭐 하 는 것 같아?  
 서연 :...우리 엄마한테 일러준다 강. 유. 채. (뺨터진다^^)

도담방은 왕놀이터 가기를 즐긴다. 거기선 한가지 놀이만 한다. 바로 아기놀이  
 지오-아빠 소현-엄마 유채-할머니 서연, 영현-아기



지오는 왕 놀이터 핸들 있는 놀이기구에 서만 논다. 그곳은 아빠 빠방. 여보랑 아이들을 태워 줘야 한다.

서연 : 할머니가 왜 그래 작아?

소현 : 맞다

유채 : 할머니는 원래 작아 얘기야(왕놀이터에서는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여보 할머니 얘기란 호칭만 있다)

지오 : (핸들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이리와 아빠 여기 있다 이리와 빠방 타자

유채 : 할머니 자동차 타고 간다 아기들아 안녕

소현 : (서연이 데리고)할머니한테 가자 할머니 둘째 아기가 아프데요

유채 :..아기..

소현 : (영현이 데리고)아기 친구 둘째아기 또 아프데..

유채 : 아기 둘이..이리와요

영현 : 언제까지 아픈거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엄마 어디 간지 알아 얘기야?

(서연, 영현이 아픈 아기 흉내낸다)

소현 : 우리 아기..엄마 까꿍!

둘째 아기는 죽었데이

서연 : 왜?.. 나 죽었어. 애기 아파서.

지오 : (멀리서 뻐옹뻐옹 계속 외친다)

유채 : 할머니 자동차 다고 갑시다 (노래한다)

소현 : 할머니 생일카드 가지고 있는데 할머니 생일 영현이 생일 흥서연 생일 아빠 생일

나갔다 올 동안 나뭇잎 다 주워서 생일카드 꾸미고 고무마 삶아서 간식 먹고

할머니는 자고 있는 거야. 할머니 옷 갈아입고 벌거벗으면 임금님이잖아...

그리고 일박동안 잠자야 돼

유채 : 응..알았어 그거 좋겠다.

## ◎ 모듬

체조와 공지 사항이 전달되는 아침 모듬은 도담방 친구들에게 긴 느낌이 있다. 그래서 교사들과 의견을 나눠봤고 도담방의 4살 연령의 특성상 끝까지 하는 부분이 힘들 수 있음을 공유하고 도담방 아이들을 조금 자유롭게 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모듬 중간에 방으로 가기도 하고 문 쪽에 앉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거실 밖으로 출입도 허용하게 했다. 월요일 차모듬 때 아이들 기침으로 돌고래가 준비한 도라지 꿀 차를 함께 마셨더니 아이들이 좋아라 해서 즐겨 마셨고 주말 지낸 이야기에 별 흥미가 없어서 주로 책을 많이 읽었다.

## ◎ 나들이

도담방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 보면 항상 놀이터다. 한번은 서연이가 “산”으로 얘기했더니 유채가 싫어하며 울어버리기에 도담방만 나들이 갈 때는 놀이터를 많이 갔고 다른 방이랑 함께 갈 때는 산과 놀이터를 함께 다녀왔다. 도담방만 갈 때는 아이들 놀이나 관계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으니 놀이 형태가 비슷하고 역할 분담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다. 다른 방과 함께 했을 때는 교사에게 집중되는 나들이 길이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하면서 분산되고 놀이의 주체와 관계도 다양해 선택해서 놀 수 있는 나들이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동생들을 챙기고 놀이도 함께 하면서 더욱 친숙해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방과 함께 가려고 의도를 많이 했고 다른 선생님들의 배려로 나들이가 다양해졌다. 증심사 썰매산 나들이에서는 서연 유채 영현 소현이가 푹푹 뭉쳐 잔디 썰매를 얼마나 열심히 탔는지 내복이 흠으로 새까맣게 될 정도로 참 대단했다. 연못가를 지나 도토리길 가는 길이 공사로 위험한 길이 되어 버렸다 (현재는

좀 덜 하긴 하다) 연못가 뚝 길을 걸어 가면서 느끼는 바람은 지나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듯 운치가 좋다. 긴 뚝길 위에 작은 아이들이 뛰어 가고 잡으러 가는 풍경은 참으로 가슴 따뜻한 모습이다. 연못가를 지나 도토리길에서는 상수리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 찾기와 마른 나뭇잎 더미에서 나뭇잎 머리 감기 청소기 밀기 등 아이들의 놀이는 끝이 없다.

### ㉠ 낮잠

10월 첫 주는 아직 돌고래에 익숙지 않고 새로운 돌고래 교사를 관찰하는 시기여서 낮잠 부분이 힘들지 않았으니 둘째 주가 되면서 눕지 않으려는 아이 노래 부르는 아이 돌아 다니는 아이...엄마 찾는 소현이로 도움이 필요해 체리샘이 낮잠 때 도담방으로 들어오셔서 삼주 동안 도와주셨다. 도담방이 외벽이고 햇빛이 들지 않아 우풍이 세고 많이 추워서 두꺼운 이불로 교체해 했고 온풍기를 달았다. 온풍기 성능이 별로 신통치 않아^^ 낮잠 자고 일어 날 때 추워 한다. 현재는 일정하게 모두들 잘 자고 일어 나서도 힘들어 하지 않는다. 낮잠 잘 때는 아이들이 선택한 책을 읽고 옛이야기 책을 함께 읽는다. 가끔씩 낮잠 자기 전 소현이가 아이들을 둥글게 앉히고 책을 읽어 주기도 하고 자기 무릎에 지오를 앉혀 책을 읽어 주는 모습을 보고 빵 터졌다.


### ㉡ 자유 놀이와 관계

서연이 소현이는 그림을 그리거나 만다라 색칠하기를 즐긴다. 교사회에서 만다라의 한계점을 나누고 나서는 개인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기에 열공이다. 서연이는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용과 형태 면에서 넘 멋진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점심 먹은 후 소현이는 다른 방으로 원정을 가며 5세들과 놀

이를 함께 하고 지오는 형아들을 따라 아니면 벚꽃을 따라 바깥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서연 유채 영현이는 도담방과 2층 거실을 오가며 역할 놀이를 즐긴다. 유채 영현이는 도담방에서 음악 틀고 춤추기도 자주 하고 도담방에 책장을 비치하고부터 영현이는 나들이 가지전 책읽기를 요구하고 낮잠 자기 전 낮잠 후 수시로 책읽기를 즐긴다. 도담방 아이들의 읽기에 맞는 수준의 책들을 비치 하니 더 흥미를 보이며 즐겨 읽고 다른 방 아이들도 함께 와서 읽으니 도담방이 요즘 늘 북적이다.

오후 간식 먹은 후 도담방 아이들은 10월에는 주로 바깥놀이를 많이 했고 11월 날씨가 추워지고 빨리 해가 지니 안에서 딱지 접기 종이 접기 등을 주로 하고 얼마 전부터 찰흙 놀이에 열심이다.

놀이나 기본 생활 습관에서 영현이 유채는 스스로 하기를 즐기고 지오 서연이는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편이다. 소현이 영향인지(엄마에게 심부름 시키는)도담방 전체적으로 돌고래에게 요구 사항이 많아 졌다. 편안해져서 그런가 하다가도 전체 터전서 약속한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고 아이들과 함께 나눠봤다.

요즘 영현이에게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 주는 부분을 교사들과 나눠봤다. 양보도 잘 하고 잘 참고 잘 사과 하고 하는 영현이지만 속상하면 친구에게 바로 표현하고 울기도 하고 교사에게 칭얼대기도 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많이 표현하게 하고 받아 주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때 그때 상황에 함께 짚어 가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영현이의 울음소리가 더 자주 나기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교사가 받아 안아 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 가람방 돌아보기

김지영(씩씩한, 피터팬)

## ※ 방구성원

5세 : 오은준, 안승우, 이루다

6세 : 송준서, 성도연, 김윤아

7세 : 이시훈, 권오빈, 박주하, 박연수, 홍소정

## ※ 가람방 돌아보기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한다.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나보다. 쌀쌀한 바람이 빨리 추운 겨울을 위해 준비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이들에겐 더위도 추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혹시 아이들은 더위와 추위를 못 느끼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만큼 뽀뽀 싸맨 나와 대조될 만큼 외투를 벗어던지고 맨손으로 얼음을 깨고 잡고 나르며 그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얼음 동동 슬러시를 만들기도 한다. 여전히 야구와 캐치볼을 즐기며 축구도 그 기세가 대단하다.

시훈이가 “가람방에선 내가 축구를 제일 잘해”하면 오빈이는 가람방에선 내가 야구를 제일 잘하지“하며 서로 주고받기한다. 주하는 11월 초에는 터전에 새로 온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벽화 앞을 종횡무진하고 기름도 넣고 세차도 하고 승객도 태워주며 바쁜 모습을 보였다.

도연이와의 관계도 지속됐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인물인 “채희”의 등장으로 요즘은 주하와 채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더 자주 보

인다. 초반에는 도연이가 섭섭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짜증내는 주하를 받아주는 덤덤함도 보이더니 요즘은 그러거나 말거나 도연이도 식은 듯하다. 어른들의 사랑만큼 아이들의 애정 관계도 참,,복잡 미묘하며 보는 이의 심장을 쥐어짜게 하는 짜릿한 맛이 있다. 또 다음엔 누굴까...?(주하는 인기쟁이 매력쟁이 기대된다^^)주하는 여전히 동생들을 잘 챙기며 정리정돈 마무리까지 잘한다 굿굿

11월은 근교 나들이와 익숙한 곳을 많이 갔으니 12월은 조금 더 길어진 다리로 가보지 않은 곳, 멀어서 시도 못해 본 곳을 가보고 아이들과 약속했다.

## ※ 기본생활교육 - 놀이감 정리정돈과 종이 및 스케치북 바르게 쓰는 방법

오전 간식먹기 전, 낮잠 자기 전, 오후 간식먹기 전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놀이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단순히 바닥에 흩어진 놀이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에(아이들에겐 우리도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 듯 놀이감도 집이 있으니 각자의 집에 넣어두자라고 이야기한다)두는 것이다. 말끔히 정리된 놀이감들을 보면 보기도 좋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손쉽게 꺼내 놓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케치북을 쓸 때도 넓은 여백에 작은 그림하나 그리고 다음 장을 쓴다거나 흰 종이를 뜯어 종이접기를 하기도 한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정성을 들여 알차게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 굵적이다가 다음 장을 쓰고 또 쓰고 스케치북 한 권을 금방 써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종이를 만들기에는 수많은 나무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이 부족하며 우리가 남은 여백

도 돌아보며 다시 쓴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이후론 차 모뎀 시간에 아이들이 스케치북을 한장 한장 넘기며 남은 여백도 채워 넣는 기특한 모습을 보였다. 자주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 5세- 보석방 이야기

곧 6살이 될 보석방. 매일매일 보는 아이들이라 잘 몰랐는데 지나간 사진을 보니 부족 많이 큰 아이들이다. 여자아이들 끼리끼리 남자 아이들 끼리끼리 놀며 끼리끼리 놀던 아이들이 이젠 끼리끼리 문화가 아닌 모두 함께 ‘어울려’노는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

나들이를 가기 전에도 여자아이들 4~5명이 길게 손을 잡고 가고 그 사이에 상화가 끼어있다. 승우와 하선이는 언제나 1,2등을 다룬다. 승주 손을 잡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옥신각신 빼치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한다. 제법 다리도 길어지고 걷는 속도도 나는 아이들이라 나들이 가는 길이 여유롭고 준비 시간도 단축됐다. 언제나 그렇듯 콩콩랜드와 놀이터를 1순위로 꼽는다. 작고 아담한 월드 메르디앙 놀이터에서는 그네와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가 단연 인기가 많다. 그네를 좋아하는 성희는, 높이 올라가면 무서워해 항상 천천히 살살만 밀어달라 하고 반면 서영이는 항상 높이 높이 더 높이 10층 높이 만큼이라고 외치며 힘껏 밀어 달라 한다. 그네줄을 꼬였다가 풀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즐겁다. 운동기구가 있는 매호공원에서는 승주와 수화, 루다가 운동기구에 항상 붙어있다. 모든 운동기구를 그네로 타는 아이들이다. 보석방 또한 더 길어진 다리와 끈끈한 우정(?)으로 푹푹 뭉쳐 새로운 나들이 장소로 겨울을 즐기려한다. ❄️

## 마루방 돌아보기

정현주(씩씩한, 아침)

### ※ 방구성원

5세- 박채희, 신차람, 이상화, 이수하

6세- 이규언, 이윤서, 이하람

7세- 김민소, 박찬홍, 이현민, 안혜승

### ※ 마루방 돌아보기

11월은 상강의 끝자락에 이르러 터전 주위에서는 보기 어려우나 나들이 길에서 나뭇잎과 풀잎에 내린 서리를 보며 ‘찬 서리 내리는 상강’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빗물 웅덩이에 언 살얼음을 보며 ‘입동에는 살얼음이 언다’는 절기의 오묘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소설에는 ‘겨울채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터전에서도 겨울채비로 아이들이 마늘을 까고 김장을 하니 아이들은 생활 속에 절기를 경험하며 대설에 정말 큰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11월 나들이에서는 청설모를 만나 눈으로 쫓으며 한 참을 놓고 코스모스와 나팔꽃 씨앗, 은탑 놀이터 화단의 채송화와 분꽃 씨앗, 화단의 달구베실꽃 씨앗을 받아 내년엔 화단에 심기위해 씨앗 통을 만들어 두었다. 나들이길 에서 만나는 배추는 튼실하게 끈이 묶여져 속을 채우고 있었는데 우리가 화단 위쪽에 심은 배추는 크지가 않아 속이 차도록 묶어 줄 정도는 아니라 씹으로 먹으면 적당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찹쌀떡 열매 따먹기와 더불어 나뭇잎으로 많은 놀이를 했는데 나뭇잎을 뿌리기, 낙엽으로 머리 감기, 나뭇잎 모아 집을 만들어 놀았고 나뭇잎을

주워 터전으로 와서 한지에 붙여서 꾸미기, 생일카드 만들기, 은행잎 꽃병 만들기는 실내 놀이로 이어졌다. 11월 말에 들어서는 간간히 보이는 얼음을 건지고 깨뜨리며 노는 재미도 즐기고 있다. 마루방과 함께 하는 시간은 월요일 차모듬을 하며 주말 지낸 이야기를 나누고 화요일에 은탑 놀이터에서 하람, 규언, 윤서는 보석 돌을 주워 놀다가 보석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받는 재미를 즐기며 놀고, 현민이와 찬홍이는 은행잎을 한 움큼씩 챙겨 모아 귀에 대고 흔들며 은행잎 딸랑이를 만들었다. 여자 아이들은 나뭇잎을 외투에 담아서 마주 들고 오느라 은탑에서 터전까지 오는 시간이 여느 긴 나들이 못지않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채송화와 분꽃 씨앗 받아오기를 즐겼고 채송화는 터전에 가져다 두고 씨앗이 말라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받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했다. 텃밭 자리 공사 상황에 따라 나들이 길을 무지개 꽃집 앞으로 돌아서 가거나 아예 다른 장소로 바뀌어야 하는 일이 간간히 있어 증심사쪽 나들이를 가게 되면 따로 비료포대가 준비 되지 않아도 외투를 깔고 앉아 타거나 보드처럼 밟고 타기도하고 뒤로 물러가 도움닫기로 달려 와서 타기도 한다. 윤서가 옆드려서 타기를 즐겨 유난히 배에 흙이 많이 묻어 ‘윤서는 배에 황토 염색 했다’며 깔깔거리기도 했다. 21일 전체 나들이에는 지구(해군수아모)와 근무하시는 노변 중학교 3학년 동아리에서 언니, 누나들이 놀러 와서 함께 등산길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점심시간에 아이들끼리 ‘언니, 누나들이 와서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나누길래 ‘왜 좋으냐?’고 물으니 아이들의 답은 이랬다.

‘누나들은 지금도 보고 싶어 난로 쬐서 고마워’,

‘꿈에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이름 멋지다고 말 해줘서 고마워’,

‘우리한테 너무 재미있게 놀아주고 선생님들은 도담방 손만 잡아주는데 우리 손도 잡아주고 나무 건널 때 잘 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아이 귀여워하고 귀여워 해줘서 고마워’

‘햇팩도 줘잖아 따끈한 거’

‘머리 땅는거 짹짹 하는거(꼬리빗)줘서 고마워’

‘누나들은 28살 이다?’(아무도 반박하는 아이들이 없었음 ^^)

‘누나들 겨울에 또 온다고 했다’

‘햇팩(햇팩) 난 그런거 잘 몰라. 규언이 하고만 놀았어. 난 이름 말 안했어 (누나들이) 이름 물어도…….’

수줍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귀엽다, 잘한다는 칭찬의 말과 자신의 손을 잡아 주고 챙겨주며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표정과 어투에서 애절함이 느껴졌다. 4세들에게 좀 더 잔잔한 보살핌이 있었던지라도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챙겨보는 계기가 되었고 다녀간 아이들은 영화 보는 것 보다 씩씩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았고 또 오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고마움 따름이다.

마지막 주에는 차모듬과 주말 지낸 이야기를 서둘러 마치고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자연 드림으로 고구마 케이크를 만들 재료(고구마, 카스테라, 시리얼)를 사러 걸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아이들의 바람으로 지하철을 타고 왔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표를 끊는 시간을 감안하니 걸어오는 시간보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한 살을 더해가는 시기가 되니 건널목 건널 때, 신호를 기다릴 때, 지하철 승.하차할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하반기에는 크게 먼 거리가 아니라면 한산한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나들이도 고려해 볼 만 한 것 같다.

고구마케이크는 고구마를 으깨어 모양을 만들고 케스테라 가루를 뿌린 다음 시리얼로 장식을 했는데 아이들의 말대로 호박 고구마가 더 달고 맛있었고 다른 방 친구들과 나눠먹기 위해 만드는 재미와 나눠 먹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느끼는 뿌듯함도 볼 수 있었다.

점심 식사는 스스로 밥과 반찬을 들어 가다보니 많이 들어 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 가기도 하는 개인차가 있는데 최근에는 하람이 까지도 밥이 남으면 반찬을, 반찬이 남으면 밥을 더 들어가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밥과 반찬을 더 들어가고 식사량이 꾸준하거나 늘었다.

양치질을 일찍 마친 아이들은 양치 후 양치상태를 확인하고 식사가 늦어지는 아이들은 도와주고 있는데 양치바구니가 노출이 되고 치약과 음식 찌꺼기가 끼어 있는 경우도 있어 칫솔 소독과 더불어 칫솔모가 벌어진 경우 칫솔 교체하는 등 매주 아마들께서 세심히 챙겨주시길 당부 드린다.

낮잠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깨어나는 시간에 이불을 감고 튕구는 시간이 길어졌다. 간식 시간이 가까워 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어나자고 이불 정리를 시작하면 이불을 애벌레처럼 돌돌감고 얼굴만 내밀고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매달리며 장난한다. 특히, 민소와 혜승이, 찬홍이, 규언이는 당기고 매달리고 뺏고 뺏기는 이불 소동이 한바탕 이루어진 다음에 여전히 후다닥 하니 간식을 먹으러 간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 가람방은 커튼만 걷어도 아이들이 깨어나는데 가람방과 마루방은 잠에서 깨어나는데도 아이들이 성향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피터팬과 함께 웃으며 한다. 2층 거실에서 이불 개고 있는 윤서에게 '이불 따뜻하겠다'고 돌고래가 말하니 윤서가 '이불이 따뜻해서 잠이 잘 온다'길래 '이

불도 따뜻한데 왜 잠은 안 잤냐?'고 물으니 '일 주일에 세 번이나 잤는데 뭐가 안 잤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단다.

간식은 밖에서 놀고 싶어서 후다닥 먹고는 신발과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문 앞에 소복히 모여서 기다리거나(사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 '나가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교사가 '화장실만 갔다가 가자'거나 챙길 것이라도 있으면, 문을 열 때까지 일제히 교사의 움직임을 목과 눈으로 쫓는 집중력을 볼 수 있고 그 모양이 재미있어서 장난으로 시간을 끄는 날은 단체로 앙탈(?^\_^)을 부리고 때를 쓰는 모습이 재미나 가끔은 즐겁다.^\_^

오후 자유놀이 시간에는 돌을 이용한 놀이로 혼자서 하는 사방치기를 시작으로 돌이 하는 사방치기를 이어 왔고 들살이에서 주워온 돌에 그림 그리기를 하게 되었는데 돌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사방치기, 공기, 고누놀이, 비석치기도 할 수 있어 고맙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고마운 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누는 것을 계기로 돌에게 편지쓰기를 해보게 되었다. 돌이 우물을 만들어 주어서, 증심사 무덤의 돌 사자가 우리를 태워 주어서, 돌기둥은 우리가 썰매 탈 때 옷을 걸어 두게 해주어서 고맙고 돌담은 친구들 끼리 붙어 있어서 좋겠다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이야기를 볼 수 있었다. 특히 7세 남자아이들은 돌에 그려진 그림과 시멘 블록을 이용해 컴퓨터 모니터와 자판, 마우스와 프린트기를 조립해서 노는 모습이 인상적 이었다. 또 한동안은 터전 주위에 떨어진 나뭇잎은 아이들이 부지런히 비질하여 모아 두었다가 컴컴해지기를 기다려 고무통을 세워 나뭇의 단도리를 한 다음 낙엽을 태우며 불장난 하는 재미를 즐겼다. 이 시간에 아이들은 물 조리예 물 한 통씩 담아 와서 내려놓고 나무막대를 찾아 쥐고 잡고

싸게 모이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불을 피우는 일은 바람이 세고 주위가 의식되어 일주일 정도로 오래 이어가지는 못해 아쉬운 감이 있었으나 내게는 낙엽 타는 냄새를 맡으며 아득한 유년시절 낙엽 태우던 늦은 가을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그 느낌을 자연스레 경험케 해주고 싶었는데 이후 아이들은 어떻게 기억 할지 궁금하다. 최근에는 득인 무역 아저씨께서 유리에 공이 부딪히는 소리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셨고 담배를 태우는 횟수가 늘어난 느낌이라 아이들이 공놀이를 할 때는 유리 앞에 서서 부딪힐 것 같은 공은 아이들과 함께 잡아내고 있다. 해서 새로운 놀이로 달팽이 게임을 시작하여 어두워 질 때까지 놀고 있는데 이 또한 조용히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소음일지나 우리아이들이 간식 후부터 하원 시간까지 2시간 30분을 실내에서 지낸다는 건 알만 한 사람들은 상상이 가는 일이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나 아저씨께서 이해하시고 잘 견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0-. 실내 모둠방에서는 책읽기, 나무블럭 놀이, 만다라 색칠하기, 색종이 접기와 더불어 찰흙놀이에 새로운 재미를 붙여 놓고 있다.

마루방의 12월 살이는 첫 주 월요일은 김장하기와 실습교사 별명 짓기가 계획 되어 있고, 2주부터는 차모둠과 주말 지낸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림으로 그리기와 가까운 곳 나들이 다녀 오려 한다. 화요일은 아이들의 바램 대로 산 나들이와 도시락을 준비해서 월드컵 경기장 나들이를 다녀오기, 요리활동으로 요구르트 과일 샐러드를 만들기를 하기로 했고 수요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전체 나들이로 추위와 이기며 재미나고 활기차게 지내보려 한다.

## ※ 6세- 상어방 이야기

11월 상어방 나들이는 아이들의 원하는 곳을 가다보니 증심사 썰매산을 세 번, 왕 놀이터를 두 번, 같은 장소를 가게 되었다. 썰매 산에서는 놀이가 빈복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옷을 깔고 잔디 썰매타기, 두 번 째 날은 앞구르기 하기, 팀을 나누어 같은 팀이 손을 터치하고 해 주면 출발하기, 세 번 째 날은 무덤 가장 자리를 데굴데굴 연속하여 끝까지 앞구르기 한 후 썰매타기를 하는 식으로 놀이의 규칙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윤서는 앞구르기를 극복하지 못해 놀이에 함께하지 못해 잔디밭에서 아침과 돌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여 썰매 산에서 앞구르기 성공의 기록을 세웠고 준서와 윤아, 지호는 공주와 왕자들이 타는 사자를 구분하여 돌사자에 옷, 목도리, 모자로 꾸며준 다음 타고 놀기도 하고 문경, 도연이와 함께 돌탑과 돌사자를 그리고 편지쓰기를 하며 노는 등 썰매를 타다가 다른 놀이들을 이어 가고 있다.

3주 목요일에는 준서네 마실 초대를 받아 엄마 까투리를 함께 보았고, 3주 금요일에는 나비가 준비 해주신 도시락을 준비해 대구 스타디움 나들이를 다녀 왔다. 가는 길에는 한적한 논길을 걸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추를 거둬들이며 겨울 채비를 하는 모습과 저수지에서 물오리 떼도 볼 수 있었다. 규언이와 하람에게는 유난히 도깨비 바늘이 많이 붙어 건다가 모두 모여 가시를 떼기도 하고 아이들은 굴(지하차도)에서 메아리 놀이가 재미있었던다. 돌아오는 길에 '걸어오니 힘들지만 좋아. 차타고 다니면 볼 것들을 많이 못 보는 데 걸어오니 볼 것들이 많았어.'라는 문경이의 말처럼 걸어 다니면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구나 여겨졌다.

아이들은 비둘기 떼가 날아가는 모습에서

별, 자동차, 솜사탕 모양을 찾기를 하며 멀리 사라질 때 까지 눈을 떼지 않고 움직임을 쫓으며 끝없이 바라보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보도 가장자리에 몰려 있는 낙엽이 발목위로 올라 올 만큼 수북이 쌓여 '부스럭, 부스럭' 소리를 내며 밟고 왔다.

상어방은 12월에도 아이들의 바램대로 대구 미술관 나들이, 지호엄마 직장초대, 샌드위치 만들기, 기차산, 꼬불길, 놀이터 나들이로 지내 보려한다.

### 먹거리 교육

11월 먹거리 교육은 효소의 좋은 점에 대해 나누는 시간으로 겨울철 감기에 효과 있는 수세미 효소와 유자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기차 여행(하양역-경주역)

11월 나들이는 6, 7세들이 함께하는 하양-경주간 기차 여행과 대릉원(천마총) 나들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평소보다 일찍 9시에 터전을 출발하여 차량아마로 하양역까지 이동을 하고 무궁화호를 이용하였다. 기차 안에서 나비가 준비해 준 빵과 꿀을 먹고 우리가 약속한 나들이의 안전을 위해 내릴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 속닥한 소리로 노래 부르며 손뼉 치기를 하고, 터널을 지날 때는 손뼉 치기를 멈추고 꼴까닥 넘어가 잠자는 놀이를 하며 하양, 경주간을 오고 갔다.

경주역에서는 진돗개, 삼살개, 풍산개와 더불어 신라시대부터 함께 했다는 천연 기념물, 경주의 개 동경이를 보았고, 대릉원까지는 걸어서 이동을 했다. 천마총에서 누구의 무덤인가에 대한 아이들의 추리는 장영실, 세종대왕, 김유신, 진성.진덕.선덕 여왕, 문무.무열왕으로 다양하게 이어지고 '(버럭) 경주는 신라의 땅 이었잖아~~쫓!' '금제 관

식(왕관)은 다음 왕에게 물려 줘야지 무덤에 넣으면 어떻게 하는데?' 남자 아이들의 언성을 높은 논란이 있었다.그 동안 몇몇 여자 아이들은 귀걸이, 반지등 장신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하고 '호미도 없는 걸 보니 손으로 파서(무덤을) 만들었는 갑다.' '무덤 속에 돌은 뭐 하러 넣노?' '이 왕은 욕심도 많다'는 등 아이들 나름을 추리와 논리를 이야기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대릉원에 있는 무덤 속은 다 비슷하다는 말에 아이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왕들은 욕심쟁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천마총을 나왔다.

계림으로 이동을 해서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으나 경주역에서부터 걸어서 인지 지쳐서 아이들의 걸음걸이가 건전지 넣는 인형이 방전된 듯,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났다. 하여 벚꽃과 의미심장한 눈빛과 소닥 거림을 주고받은 뒤 대릉원에서 제일 한적해 보이는 대나무 숲 뒤에서 우리는 나름 조용히 점심을 먹었다.

점심 후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백만스물 하나를 세는 에너지이저의 기운으로 대나무 장대를 들고 감을 따겠다고 뛰어다니고, 문화 관광부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촬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주로 오세요.'(배시시 웃음으로 마무리), 대나무밭 사이에 난 미로를 탐험하고, 양지쪽에서 햇별을 쫓기도 하고, 대릉원을 경중거리며 뛰어 다니며 놀았다. 이렇게 놀다 보니 여느 때처럼 노는 시간은 아쉬웠으나 돌아가는 길에 또 기차를 타는 기대에 쉬이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다.


경주에서 하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기차가 10분 정도 연착을 해서 도착 시간도 늦어지리라 감안하고 도착 10분 전에 내릴 준비를 하려 했으나 하양역 도착 예정 안내방송을 듣고 모두가 서둘러 준비를 하고 내렸다.(지나고 생각해 보니 오는 도안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여러 차례 나더니 늦은 만큼 속력을 내어 달린 듯하다.)

경주역에서 대릉원을 오고가는 동안 산 나들이와는 달리 도심을 걷는 구간이 길어 지니 아이들이 무료해하고 의외로 많이 지치는 경향이 있어 돌아 올 땐 초콜릿이나 사탕을 준비하면 마음과 입도 즐겁고 기운을 차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나들이 안전을 위해 차내에서 일어나지 않기와 모이자고 하면 곧바로 모이기를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기차를 타고 내릴 때 긴장감 속에 일사분란하게 모이고 줄을 서는 평소와는 또 다른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하양역에서 아마들의 마중을 받으며 기차여행 마무리 했다.

안전, 약속, 점검은 함께 지킬 것에 대해 공유하고 6,7세는 하반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나들이를 좀 더 시도 해 봐도 될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 아라방 돌아보기

황태순(씩씩한, 벚꽃)

### ● 방구성

김채원(7), 김현동(7), 문환주(7), 박찬종(7), 김지호(6), 장문경(6), 최영윤(6), 이서영(5), 박성희(5), 송하선(5), 조승주(5)

### ● 아라방 돌아보기

#### 1. 생활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일까? 그래도

여유가 있던 좁은 아라방이 이제는 몇 명만 앉아있어도 복잡거릴 정도로 부쩍 커버린 빠른 시간만큼 이 한 달도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아라방으로써 또 씩씩한에서의 두 번째 겨울을 보내는 지금의 시간들이 더 소중한 게 느껴진다.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누런 코를 흘리고 약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결석하지 않고 등원하였다. 아라방은 특히 일찍 등원하는 친구들이 많은 편이다. 또 아침 열기 전까지 밖에 나가있기도 하고 더 활발하게 노는 것 같은데 아픈 아이들이 적어 체력이 그만큼 강해졌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옷이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 몸이 무거워지다보니 정리 정돈하는 습관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된 듯하다. 여기저기 외투가 뒹굴거리고 있고 가끔 어디에 옷을 두었는지 못 찾을 때가 있다. 양치도 했는 티도 안 날 정도로 후다닥이다. 이달은 어딘지 모르게 붕 뜬 기분이 아이들에게 느껴지고 어수선한 느낌이랄까? 조금은 지난달보다 업 된 분위기이다. 그럴 때일수록 기본생활도 다시 돌아보아야 되겠지만 특히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보내고 있다.

#### 2. 이렇게 보냈어요.

7세들이 배놀이터 나들이 길에서 주워온 부루마불을 며칠 째 하느라 야구는 조금 시들해진 감이 있지만 국기책을 만들 때 와는 달리 보드게임처럼 만들어 재밌게 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찬중, 환주, 현민, 찬홍, 영윤)

아침에는 살얼음이나 서리가 터전 곳곳에 있다. 오전 간식을 후딱 먹고 얼음을 깨느라 빨리 나가자고 성화다.(현동) 고무통처럼 조금은 깊숙한 곳에 있는 얼음은 하선이가 쿵쿵 두드려 깨고 승우가 살포시 조리개로 들어올려 환상의 조합을 자랑한다.

문경이는 민소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었는데 터전에서는 같이 있는 모습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다. 기차여행에서는 서로 챙기고 웃고 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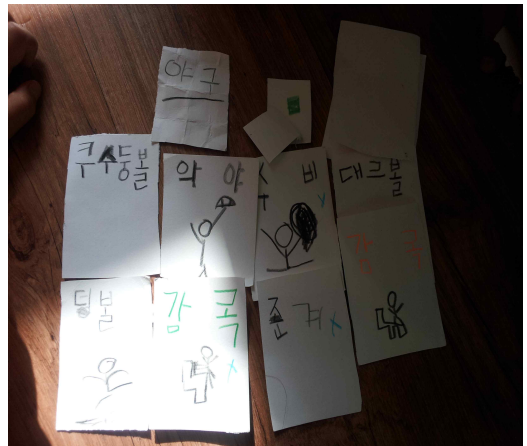
서영이는 터전 계단을 올라가다가(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을 헛딛어 이마에 볼록한 혹이 났었다. 처음엔 다른 친구들이 얼굴을 보는 것이나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민감해 하고 싫어했었는데 점점 눈 밑으로 내려왔던 멍이 열어지고 혹도 가라앉으며 미모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채원이는 감기, 중이염 등으로 몸이 조금 힘든 11월을 보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벚꽃 옆에 앉으려고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모래놀이터에 아이들이 집을 만들었던 것을 치우며 시멘트 벽돌을 나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여자아이다. 골고루 성별에 관계없이 잘 어울린다.

성희와 승주, 서영이는 공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공통점으로 주말 보낸 이야기를 나눌 때 거의 끝까지 자리에 앉아 서로 그린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누가 종이 접기를 할 때는 금새 그것을 따라한다. 서로 비슷한 것을 하며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호는 말을 아기처럼 하더니 이제는 벚꽃을 “우리 아기”라고 부른다. 어느날 먼저 나오는 길에 “안녕. 엄마”라고 했더니 그 뒤로 계속 아기라고 한다.—, — 나들이 가서

슬래잡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기록재기, 남자 아이들 소수만하는 달리기도 해서 별로 움직이지 않던 지호의 움직임이 올해 중 가장 많고 활발하지 않나싶다.





- 1) 안전벨트를 꼭 매기.
- 2) 창밖으로 손이나 얼굴을 내밀지 않기.
- 3)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기.
- 4) 차 안에서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아이들이 모두 익숙하게 잘 아는 부분이어서 의도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모두 해 주었고 동생들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던 것 같다. 다른 대중교통수단이었지만 기차여행을 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스러웠던가 막 돌아다니지 않아서 이야기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더 대견스러워보였다.

#### 4. 12월은 이렇게 보낼거예요.

- 1) 직조가 마무리 되는대로 털실 목도리 뜨기 시작
- 2) 트리장식물 꾸미기
- 3) 7세- 2013년 달력 만들기

#### ◎ 태권V 이야기와 선화 어린이집 통합활동



#### 3. 안전교육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하는 것 중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의미로 교통수단 특히 자동차를 이용할 때의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딱지따먹기 할 때~판아가 내 것을 치려고 할 때~ 노래를 부르며 접은 딱지가 100개



집을 정리한 후 모래 고르기를 하다가  
생각한 함정 만들기



싱크대를 사이에 둔 주하와 도연의 사랑  
은 여전히네요



집 만들기 공사. 집 안에서 불도 피우고  
참 재미있었지..



빵이요!!



선화어린이집 정아와 함께 ^^



할아버지 할머니 윗놀이 구경 중



이제 저기로 머리하러가자 바쁜 여자 아이들

### <11월 15일 선화어린이집 통합활동>


2012년 두 번째에 남지 않은 선화와의 만남. 씩씩한 나들이 장소인 산딸기언덕으로 향했다. 그리 바람도 세지 않고 나들이 가기에 적당한 날이라 다행이다. 시훈이가 “오늘 태훈이는 왜 안 왔어?”하며 여행 간 친구의 안부를 물었다. 이름을 기억하고 이야기해주는 시훈이에게 선화 선생님이 더 놀라셨다. 아이들은 익숙한 장소여서 빠르게 걸어갔다. 나뭇잎도 많이 떨어져있다. 폭포길 웅덩이에 함정 만든다고 내려가거나 배수관에 달팽이가 있나 없나 오르내리기를 분주하게 하였다. 산딸기 가기 전에 있는 통나무 다리 건너기는 아이들의 필수 코스다. 먼저 다리를 건너니 선화의 선생님과 친구들도 당연히 건너야 하는 곳인 줄 알고 따라 건넌다. 그리고 두 번째 통나무를 건널 때 생각보다 높고 물이 있어 씩씩한 친구들이 선화 친구들 손을 잡고 도와주었다. 하지만 힘들게 건너니 다시 처음의 장소로 도착. 선생님들은 “엥?”했을 듯하다. 그리고 산딸기 언덕에 도착. 남자 아이들 몇몇은 도처에 베어진 나무들을 보고 집을 지어야겠다며 좋은 나무들을 구하기 위해 무덤 아래쪽에서 울

라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나머지 친구들과 신발 던지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였지만 자유놀이에 더 심취한다. 차도 마시며 아이들은 기분 좋게 뛰어 놀은 것 같다.

1년 정도 선화친구들을 만나서 느낌이 어땠냐고 물어보니 거의 다 좋았다 라고 대답을 한다. 싫거나 기분 나빴던 적은 없느냐 했을 때 산에서 나무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주 던졌을 때, 내 건빵브로치 먹었을 때라고 말해주었다. 당황스러운 경험도 있고 좋고 싫고 모르겠는 등의 다양한 느낌들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친구들을 만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 ◎ 대구지역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회 워크샵을 다녀와서

대구지역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회 워크샵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16,17일 노마어린이집에서 긍정적인 칭찬법 및 습과 친목을 위한 자리를 내용으로 한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첫날 대구북구 시민연대와 도시 농업 사업단에서 주최한 성미산 마을 공동체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구요. 다음날은 칭찬법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의 경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칭찬 수준을 알고 칭찬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함께 해봄으로써 아이들과 마주할 때나 가정에서 끊임없이 맺는 관계에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하는지 많은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 요리활동 돌아보기

노승복(씩씩한 나비)

## 요리활동1-(11월28일)

### 유자청 만들기

비타민이 가득하고 추운 겨울철 감기에방에 좋은 유자청 만들기를 했다. 목을 따듯하게 해주는 유자차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비타민이 단감의 2배, 레몬의 3배 정도로 다른 과일에 비해 엄청 많다. 어른들은 보기만 해도 신맛이 떠올라 침이 나오는데 입맛이 당기는 유자를 보고 그냥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맛있다고 계속먹고 싶어했다 . 노오란 유자를 2등분해서 씨를 발라냈다. 씨는 6개월간 정종을 넣어 보관해두면 스킨이 된다고 해서 찬 곳에 잘 보관해두고 훗날 스킨으로도 사용 해 보기로 했다. 껍질과 과육을 잘게 채 썰어 큰 양푼이에 유자랑 설탕을 같은 비율로 넣어 축축하게 녹인 후 유리병에 넣었다. 다음 주 차모듬에서 유자의 상큼한 맛을 조금 맛보기로 했다. 그리고 20일 정도 지난 후 숙성이 잘 된 달콤한 유자청을 먹으며 겨울을 지내자고 이야기 했다 ^.^

### 오전새참

나비는 등원하면서 추위를 느끼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쳐 현관문에 매달려 '나가자,나가자!'하고 외친다. 나가더라도 바로 간식시간이 되어서 얼마 놀지도 못하는데 기를 쓰고 놀러 나간다. 그래도 시간은 잘 지켜서 '간식시간이다' 하고 외치면 바로 뛰어 들어온다. 신나게 놀고 온 기분으로 간식도 후딱 잘 먹는다. 텃밭에서

기른 누런 호박으로 호박죽을 준비 했는데 호박의 단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설탕을 조금 넣어 준비했더니 아주 잘 먹어 주었다. 반면 단호박 스프는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단맛이 강해 우유랑 함께 준비해주면 몇 번씩 더 먹는 경우가 많다. 쇠고기, 버섯, 당근, 양파 등이 들어간 쇠고기죽, 참치, 감자, 당근, 양파가 들어간 참치 죽에 고명으로 깨소금과 김가루를 얹어주니 반응이 더 좋았다. 전날 간식으로 찐 감자를 사용하고 남은 양을 냉동실에 두었는데 표시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고구마로 착각을 하고 스프를 만들었다. 고구마스프는 달아야 하는데 음식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달지 않지?' 하고 가우뚱하며 만들어 주었더니 아이들이 한입 맛보고는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 스프 같다는 말을 하기에 그제야 아차 싶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고구마는 다른 통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입맛이 보통이 아니다. "미안해, 나비가 착각했나봐. 다음부터는 꼭 메모를 해둘게 ^.^ 들살이 때 준비한 현미 가래떡이 남아 썰어서 떡국 떡으로 만들었다. 현미떡국을 준비 했는데 아이들이 먹으면서 꼭 풀 같다고 말을 했다. 현미로 만든 떡국이 그렇게 퍼지는 줄 나비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래도 떡국 맛은 남아있어 여유분까지 맛있게 싹싹 비웠다.

### 점심

일품요리인 카레라이스가 이번 달에 인기가 좋았다. 매번 똑같이 다식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당근, 호박, 감자, 양파의 야채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돈육만 다른 때 보다 많게 1팩을 더 사용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아이들 대부분이 몇 번씩 더 먹어서 여유분의 밥과 카레 모두 동이 났다. 보통 때는 야채를 먹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일도 있지만 이 날은 모두 잘 먹어 주었다.


참치 미역국, 키조개 미역국, 쇠고기 미역국 등등 생일날마다 다른 재료로 미역국을 끓여 준비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조개류가 들어간 미역국은 싫어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는데 하얀 키조개살 국물이 뽀얗게 우려나고 다른 조개와는 색다른 맛이라고 설명해 주었더니 몇몇 아이들은 조개살만 먹기도 했다. 단가가 비싼 한우장조림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넉넉히 준비했다. 메추리알과 함께 준비해서 몇 번씩 먹고 선생님들의 별다른 지도 없이도 스스로 잘 먹었다.. 찐 감자를 으개서 오이와 당근, 수제 마요네즈를 이용해 샐러드를 만들어 주었더니 볶음요리 못지않게 잘 먹었다. 양념 두부조림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먹기에는 조금 맵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졸였는데 7세 형님들은 밥에 비벼서 이렇게 먹는 거라며 잘 먹어 주었다. 하지만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동생들은 두부조림을 조금씩 먹고, 물도 많이 먹었다. 쌈배추를 찌서 주었는데 배추의 고소한 맛이 인기가 좋았다. 길게 펼쳐서 밥을 얹은 다음 양념장을 얹고 돌돌 말아서 잘 먹었다. 뒷맛이 싹싹한 도라지를 하얗게 나물로 만들어 준비했는데 감자인줄 알고 듬뿍 담아 갔다가 남겨서 선생님이 처리해주기도 했다. 아삭하게 데친 숙주나물과 단맛이 많이 나는 풋호박볶음,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시금치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듬뿍 넣어 무친 시금치나물 등등 여러 가지 야채 반찬들도 대부분 잘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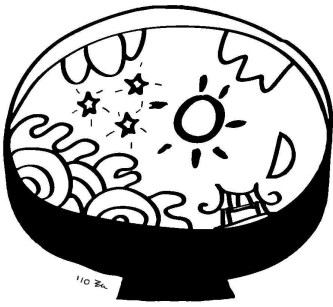
## 오후새참

아이들이 먹을 때 속이 많이 흘러내려것

같아서 준비 하지 않았던 샌드위치를 오랜만에 준비 했다. 샐러드를 만들어 속을 채워 넣고 먹기 편하게 작게 네모모양으로 잘라 주었다. 그런데 오빈이가 샌드위치는 삼각형이어야 한다며 큰소리로 말했다. 삼각형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 그래서 일부는 삼각형으로 잘라 준비 해 주었다. 아이들은 삼각형 샌드위치를 더 좋아했다.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샌드위치 속을 흘리지 않고 야무지게 잘 먹었다. 도담방은 돌고래쌈이 더 잘게 준비해서 맛있게 잘 먹었다. 김치를 사용해 잡채를 준비 했다. 김치를 씻어서 준비하고 미리 간이 되어있어서 간장을 조금 사용해 맛을 조절 했다. 일반 맛보던 잡채와 색깔이 달라서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한번 맛보고는 열심히 잘 먹었다. 유난히 간식이 뭐냐고 낯잠을 자기 전에 들락날락하는 아이들이 많다. 초코핫케이크! 입구에 준비된 식단표를 보고 형아들이 말하면 동생들은 확인차 나비에게 달려와서 준비되면 얼마나 먹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간식을 다 먹고 나면 항상 잘 먹었다고 말해주는 모습이 참 고맙다. 그날 간식이었던 초코핫케이크는 매우 신나게 잘 먹었다 ㅎㅎ

이번 달에도 사과, 반시, 고구마, 단감, 호두과자, 오징어 피대기, 호박을 부조 받아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 부조된 물품으로 식단이 변경 된 날도 있었습니다.

12월에는 날씨가 더욱 쌀쌀해지니 몸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즐거운 식사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 씩씩한 맛있는 12월 식단

	월 3	화 4	수 5	목 6	금 7(대설)
오전간식	만두국	고구마스프	계란토스트	떡국	누룽지탕
점심	들깨미역국 돈육수육 콩나물무침 요리활동-김장하기	배추된장국 감자볶음 콩조림	볶음밥 맑은된장국	두부된장국 고등어 구이 시금치나물	콩나물국 우엉조림 김구이
오후간식	김영현생일터	오징어 김치전	찐고구마	칼국수	간장 떡볶이
	10	11	12	13	14
오전간식	새우죽 쇠고기 미역국	닭죽 동태부국	단호박죽 짜장밥	쇠고기죽 침차김치찌개	새알미역국 토란된장국
점심	닭강정 오이무침	버섯볶음 숙주나물	계란국	도토리묵무침 오징어초고추장	메추리알장조림 진미간장볶음
오후간식	이서영 생일터	요플레(유자청)	샌드위치	잔치국수	단호박빵·두유
	17	18	19	20	21(동지)
오전간식	조랭이떡국	땅콩죽		계란 스크램블 팽이버섯된장국	모닝빵·매실효소
점심	어묵두부국 도라지초무침 연근조림	참치미역국 쇠고기장조림 과일 샐러드	대통령선거일 휴원	삼치간장조림 미역줄기볶음	팥죽 나박김치 요리활동:새알빚기
오후간식	오징어 실파전	신차람생일터		도토리묵채국	고구마스틱
	24	25	26	27	28
오전간식	들깨죽 쇠고기맑은국		타락죽 콩나물밥	삶은계란·매실 닭고기국	콩나물갱시기 우렁이된장국
점심	멸치조림 오이볶음	성탄절 휴원	맑은두부된장국	고사리나물 두부조림	어묵야채볶음 시금치나물
오후간식	핫케익·우유		찐빵	어묵탕	인절미

\* 식품원산지 - 쌀·잡곡류·쇠고기(한우)·돼지고기=국산 김치(직접담금)-배추·고추가루=국산, 생선=국내산

\*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 방과후 11월 교육평가 · 12월 교육계획

김병현, 류선희(해바라기 토토로, 포도)

11월에는 방과후에 흐름을 조금씩 바뀌어 보았다. 보통 활동의 시작을 3시 정도에 시작하는데 몇몇 활동에서는 간식 시간 이후에 했다. 간식을 먹고 책읽기와 숙제를 하고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 만큼 놀이의 호흡이 길어졌고 3학년 이상 아이들도 학교 마치고 바로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할 수 있어 좋아했다. 특히 간식 전까지 놀게 되니 고산초등학교 운동장을 차지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고산초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도 덩달아 좋아했다.

간식을 먹은 후 분위기를 가다듬고 하는 활동이 만다라 그리기, 풍물, 낙엽으로 협동작품 만들기, 회의 정도였는데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앞서 간식 전까지 열심히 놀던 아이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탓인지 아이들이 정적인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11월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라 터전에 감기 환자들이 많았다.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는 아이들이 늘어서 터전 안에서만 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운동이 줄넘기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하는데 아파도 나름 줄넘기는 열심히 한다. 이제 일학년도 줄넘기는 자기 특기로 삼을 만큼 실력이 늘었다. 요즘 이단 뛰기에 도전하는 수아는 엘리트 체육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냥 뛰기가 심심한지 11월 중순이후에는 엑스자 뛰기나 이단 뛰기, 뒤로 뛰기에 도전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 ♥ 고산초등학교에서 놀기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와 고산초에 간다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학교에 간다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하러 간다는 뜻이고 고산초에 간다는 고산초에 가서 놀고 싶다는 뜻이다.

11월 달도 아이들은 고산초에 가자고 졸라댔다. 특히 운동을 하고 싶은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싶은 아이들도 함께 말이다. 11월 고산초에서는 축구를 자주했다. 우리 아이들과 고산초에서 축구 연습을 하던 아이들이 섞여서 축구를 했는데 우리아이들이 그리 밀리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렇게 몇 번을 뛰던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해바라기 축구구”를 만들자고 제의를 했다. 특히 하랑이가 상기된 얼굴로 힘차게 주장했다. 팀 조기도 사고 아이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축구를 연습하자고 했다. 여기에 동의하는 아이들도 몇몇 있기도 했다. 자발적 축구팀을 만들자고 하는 아이들이 기특했다. 운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가다듬고 동네 아이들과 정기적인 축구 시합을 주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네 축구를 하다보면 5, 6학년들이 끼어들고자 할 때도 많은 데 그럴 때 마다 큰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축구경기 때문에 관심 있어 하던 1, 2학년들이 재미없어 하기도 했다.

자전거 타기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들은 병준이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다. 찬희, 서준, 찬우, 장민, 석영 이렇게 6명의 아이들과 몇몇 아이들이 더불어 고산초 전체를 무대

로 자전거 타기를 했다. 자전거 타고 잡기놀이를 하면서 서로 재미를 만들어 간다. 물론 자전거 타는 그 자체를 즐기는 아이도 있다.

자전거를 타다 재미가 떨어지면 강통차기를 한다. 처음엔 토토로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놀았지만 점점 아이들 중심으로 놀이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강통차기를 잘만 이용하면 놀이를 기민하게 잘하거나 요령껏 잘하진 못해도 술래의 역할에 따라 놀이의 재미들이 확 늘어난다. 특히, 달리기가 조금 늘이거나 민첩하지 못해도 숨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두를 구해내는 일들이 생기고 이 일을 통해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여자아이들은 줄넘기를 자주 가져온다. 운동장을 줄넘기를 하며 달리기 놀이를 하기도 한다. 교단에 모여서 태극기 놀이도 하고 구름사다리에 매달리기도 한다. 운동장에 모여서 수다 떠는 일도 여자아이들의 중요한 놀이이기도 하다.

### ♥ 기지산 놀러가기

겨울에 막 접어 들면서 기지산을 갔다. 오랜만에 가는 기지산은 여전히 아이들의 훌륭한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남자아이들은 산에 오르자마자 만만한 나뭇가지를 주워 들고 칼싸움에 빠져든다. 마구잡이로 휘두르기보다 나무 칼 자체를 가진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한 모습이다. 이리저리 패거리를 만들어 서로 쫓고 쫓긴다. 이 놀이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봐주는게 없이 일방적으로 흐르면 금방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도 보이곤 한다.

일학년인 하민, 장민, 서준이는 산에 가셔도 수다에 여념이 없다. 옆에서 들어보면 두서 없이 하는 말인데도 곧 잘 알아듣는 아이들이 신기했다. 척 하면 착이다.

여자 아이들은 산에 오르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지를 만든다고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모은다. 기지를 정하고 방을 꾸미고 낙엽으로 바닥을 깔고 하는 자체가 놀이이다. 기지를 만들고 그 좁은 기지 안에 들어갔을

때 큰 기쁨을 느낀다. 그만큼 애정이 많기도 하다. 서로 다른 팀이 만든 기지를 보고 흥내 내기도 하면서 기지의 모습이 기지다워지기도 한다.

### ♥ 강민모와 나무토막 붙여 만들기

강민모가 나무토막을 잔뜩 가져 오셨다. 세하 아빠 공방에서 남은 나무토막을 가져 오신 것이다. 이 나무토막을 이용해 목공품을 붙여 자기가 상상한 모양을 만들어 갔다. 기발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처음엔 관심 없이 자기 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의 재미있어 하는 반응에 슬그머니 끼어드는 아이도 있었다.

붙여 만들 때는 이게 뭔가 싶다가도 다 마르고 전시를 하니 나름 작품의 모습을 보였다. 덕분에 여러 전시회를 거쳐 가며 우리 아이들의 나무토막 작품이 소개되기도 했다.

### ♥ 긴 나들이

가을 방과후 공원은 낙엽 천지다. 각종 활엽수와 단풍이 공원 바닥을 가득 메웠다. 아이들과 방과후 공원에 가서 놀면서 지퍼백에 여러 단풍과 낙엽을 모아 왔다. 각자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낙엽을 모아 온 것이다. 잠시 간의 낙엽 줍기 시간이 끝나고 남자 아이들은 조그만 빨간 열매를 따다가 서로 던지면서 잡기 놀이를 했다. 별로 아프지도 않고 열매의 양도 많아서 아이들이 놀이 재미에 푹 빠져들었다. 겨울이라 두꺼운 옷을 입어서 더욱 과감해 지는 아이들도 있었다. 물론 놀이가 일방적으로 흐르면 다시 편을 갈라 놀이를 새롭게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옆에서 교사가 지켜본다.

여자아이들은 포도를 중심으로 수다 떠는 아이들, 여기까지 와서도 줄넘기 하는 아이들, 운동기구에 모여서 이것저것 하며 웃고 있는 아이들 계속 낙엽만 줍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남대를 갔다. 이제 지하철이 생겨 예전 버스를 타고 어렵게 가던 일들이 옛일이 되고 말았다. 영남대 역에 내려서 올라가니 학교 입구에 전시장이 아이들 눈에 들어왔다. 시각 디자인과 학생들이 전시한 작품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눈으로 한번 훑 구경을 하고는 몸으로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금방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작품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한참을 구경했다. 하민이는 영상 작품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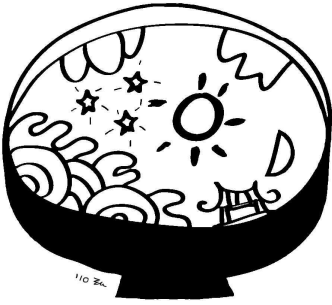
학교 입구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놀았다. 약간의 언덕이 있었는데 몸을 굴리며 서로 포개지기를 한다. 연신 떠나갈 듯 웃으며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옆에서 강민이와 서준이가 씨름을 한다. 결판이 잘 안나기도 하지만 강민이가 서준이를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에 다른 아이들도 씨름에 동참하며 잔디에서 덩군다.

한참을 놀다 아이들이 발견한건 이곳이 꽤 뛰어다니고 숨을 곳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과 도둑 놀이를 했다. 서로 잡고 잡히는 꼬리 물기가 계속 되었다. 석영이를 전담 마크한 아이가 환승이인데 번번히 석영이가 잡히자 잔뜩 화가 났다. 왜 자기만 쫓아 다니냐는 것이다. 환승이는 나름 재욱이와 역할을 분담해서 자기가 석영이를 맡았노라고 설명했고 석영이도 알아들었는지 항의가 없어졌다. 그 뒤 환승인 여러 아이들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했다. 잔치는 안방을 지키며 나름 잡힌 아이들은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나름 열심히 했다. 아이들의 놀이 분위기는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그때마다 서로의 역할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애를 쓴다. **해**

### ♥ 해바라기 방과후 12월 계획표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1
2주	3 만다라	4 기지산	5 영남대	6 개인활동	7 소원 나무 만들기	8
3주	10 남녀활동	11 기지산	12 박물관	13 카드 만들기	14 기지산	15
4주	17 만다라	18 천을	19 대통령 선거	20 개인활동	21 작은 무대	22
5주	24 자유놀이	25 크리스마스	26 자유놀이	27 개인활동	28 방학식 한 해 정리 인사 나누기	29



## 해바라기 맛있는 12월 식단

	월	화	수	목	금
	3	4	5	6	7
점심					
간식	박찬우생일	만두국	김치주먹밥	정석영생일	고구마맛탕
	10	11	12	13	14
점심					
간식	잔치국수	오징어부추전	유부초밥	감자구이	잡채
	17	18	19	20	21
점심			선거일		
간식	핫케익	김동현생일		과일요플레 토스트	팔죽
	24	25	26	27	28
점심		성탄절			배추된장국 돼지불고기 오이무침
간식	궁중떡볶이		샌드위치	조랭이떡국	또띠아피자
	31				
점심	겨울방학				
간식					

\* 식품원산지 - 쌀,잡곡류,쇠고기(한우),돼지고기=국산 김치(직접담금)-배추,고추가루=국산, 생선=국내산

\*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씩씩한 터전 소식

김진열(씩씩한 송준서엄마)



## 1. 우리의 놀이터는 세상 모든 곳이다.

6, 7세 친구들이 기차를 타고 경주에 기차 여행을 다녀왔지요.

천년의 미소를 지닌 경주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습니다.(교사들의 목인 하에~)

아마 교사들은 무덤위에서 썰매 타는 아이들을 애간장 태우며 지켜보다가도 누군가 지나가면 저 아이들은 어느 어린이집 아이들이고 하는 표정을 지으며 애써 아는 티를 내지 않았다는 후문이~~~

대릉원에서 감나무를 본 아이들 감을 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겠죠. 어떻게 딸까 궁리하면서 콩콩 거려도 보고 나뭇가지를 땡겨도 보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

아이들은 아주 애절한 눈빛으로 선생님들께 감을 따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들 아이들의 애절한 눈빛을 거절하지 못하고 직접 나서봅니다.

대나무 하나 구해서 감나무에 이리 폭, 저리 폭 하는데

아뿔사 대릉원을 지키는 아저씨가 나타나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말 한마디에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넉넉한 품으로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준 대릉원 큰 무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어요.

## 2. 건축대전에 보낼만한 건물이 씩씩한 앞마당에 만들어지다!!

(아이와 선생님이야기 -981번 집짓기와 캠프파이어 참고)



7세 아이들이 나들이길에서 업어온 굵은 나무둥치들이 멋진 집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화단을 지탱하다 지난 대청소 때 수명을 다한 시멘트 벽돌도 한몫을 했다는군요.

얼기설기 엮은 듯 하지만 나름 균형 있고 멋스런 집이 탄생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집을 만들면서 느꼈을 환희를 생각하니 저 또한 감탄사가 절로 나오답니다.

사실 해바라기 모 아마도 터전에 들렀다가 아이들이 지어놓은 집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다는 소식이네요.

“수하아버지 건물 많이 지어봤지만 이런 멋진 집은 처음 보시죠?”

### 3. 씩씩한 카페 납시오~

요즘 은준네는 안팎으로 제2의 창업에 열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은준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꽃: 오은준 기자 나오세요!

은준: 네 오은준 기자입니다.

감꽃: 요즘 은준네에서 제2의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아참 은준아 말 너무 어렵지?

요즘 엄마, 아빠 뭐하고 다니셔?

은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는 요즘 집에서 떡케익만든다고 바빠. 며칠전에 씩씩한 엄마 아빠들이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대. 그리고 아빠는 커피를 갈았다가 물을 부었다가 그래. 가끔은 냄새도 맡아. 엄마가 가끔 마셔주기도 해.

감꽃: 엄마의 케익 중에 가장 맛있는게 뭐야?

은준: 나는 호두파이 좋아해.

감꽃: 나도 먹고 싶다. 나는 은준 아빠가 갈아주는 커피도 먹고 싶네.

은준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

은준: 감꽃 안녕~~

은준네의 아빠가 내려주는 커피와 함께 은준엄마의 떡케익이 어우러지는 그런 카페가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



## 해바라기 터전 소식

권미숙(해바라기 박병준 엄마)

### 1. 줄넘기 잘하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죽어라고 2단뛰기 줄넘기 연습하겠지~~~

해바라기는 지난달에 이어 계속 줄넘기 사랑이 정점을 향해 치달고 있습니다.

1회에 150개씩 줄넘기를 할때 예전에는 3-5분 정도 소요되었으나, 이젠 단숨에(1분 이내) 해버린답니다. 이제 그냥 넘는 줄넘기는 시시해서 양발뛰기, 한발뛰기, X자뛰기, 2단뛰기 등 여러 가지 미션을 적용해 해바라기 마루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에서 한 몸무게 한다는 안모양, 최모군, 박모군 등은 처음 줄넘기를 하기 싫어 도망다니면서 무척 하기 싫어 했는데, 지금은 150개 정도는 날렵하고 가볍게 돌파합니다. 아마 자세히 보면 몸매가 살짝 가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꼭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봐 주세요. 특히 찬회는 오자마자 줄넘기, 시간만 나면 줄넘기, 이렇게 줄넘기에 심취해 있다고 합니다.

줄넘기 사랑에 빠질 수 없는 한 소녀가 있으니, 해바라기 줄넘기 지존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정수아를 빠트릴 수 없습니다. 가볍고 사뿐히 흔들림 없이 너무 예쁘게 줄넘

기를 하는 수아의 모습을 본 모 아하는 ‘저 아이가 인형인가? 사람인가?’ 하며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바라기에 가면 인형인지 사람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줄넘기 지존’으로 군림하던 정강민군이 이제 정수아양에게 그 자리를 넘겨 줘야 할 것 같은 위기를 느껴 줄넘기 실력을 숨기며 수아의 도전을 피해 도망 다닌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 2. 세하가 연못에 빠진날~~

해바라기 연못이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세하가 얼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얼음이다.~” 이 소리를 들은 환승이가 연못을 향해 돌진해 오며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세하를 덩치고 말았습니다. 세하는 그대로 연못속을 풍덩~~~ 겨울 첫 얼음맛을 제대로 보았네요.

흠뻑 젖은 세하는 누굴 닮았는지 모를 깔끔한(?) 성격으로 웬만하면 남의 옷을 입지 않으려고 버티었으나, 완전 젖은 하의에는 굴복하여 동현군의 바지를 빌려 입었으나, 조금 젖은 상의는 벗지 아니하고 꾀꾀 버티어 그 깔끔함을 과시 하였다고 하네요..

한편,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는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 유환승군은 이 사태만을 빠르게 간파하여 번개사과를 내밀어 더 이상의 소요사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하야~~ 감기 안 걸렸니?

## 3. 가을은 모든 잎이 꽃잎이 되는 두번째 봄이다

가을을 보내며 낙엽으로 가을나무 꾸미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녀와 학년을 고르게 섞어 5개조를 짠 후에 해바라기 건강 공원으로

가서 늦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며 낙엽들을 한아름 모아 왔습니다.

다섯팀이 종이위에서 낙엽과 즐겁게 노닐다니 어느새, 단풍나무, 가을사과나무, 늦가을의 세종 stree, 메이폴 스토리, 자연인이라는 작품 5점이 탄생되었습니다. 해바라기에 가시면 가을의 모든잎이 꽃잎으로 다시 탄생한 멋진 이 작품들을 꼭 감상하시고 감상평 남겨주세요~

ps. 관전포인트 : 이날 같은 조에 편성된 4학년 같은 반 병준이와 희연이는 평소 서로 아는 채도 하지 않는 사이였는데, 이 날만은 서로 살갑게 의논을 하며 아주 사이좋게 작품활동을 하였다는데, 이들의 작품속에는 마법의 요술 낙엽이 숨겨져 있을수도~~~



## 4. 하민이의 위기탈출 넘버원

하민이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날,

서준이와 하민이가 해바라기 마루에서 잡고 뛰고 넘어뜨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민이가 서준이 바닥으로 짱 넘어뜨렸더니,



서준이가 억하고 쓰러지면서 기절(?)하였습니다.

이때 하민이의 위기탈출 첫 번째 - 서준이 얼굴에 뽀뽀를 하며 “살아라” 하고 명령합니다. 역시 뽀뽀는 약한가 봅니다.

위기탈출 두 번째 - 안전테마파크에서 배

운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인공호흡 실시 후 “살아라~” 했더니, 서준이가 눈을 번쩍 뜨네요. 정말 환상의 콤비입니다.

- 하민아, 서준이가 그렇게 좋아?
- 응. 서준이가 참~~ 좋아
- 그런데 포도가 보니, 서준이 좋아한다면 서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 씨~~익 ☺

### 5. 해바라기 부모 상담 주간 운영

2012년 해바라기 부모상담을 11월, 12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상담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현재 6팀이 상담자료를 제출했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됩니다. 아직 상담기초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아마들은 얼른 얼른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 운치 있는 개실마을에서

정미향(씩씩한 김윤아소현엄마)

## ◎ 들살이 돌아보기

11월 1, 2일 고령 개실마을 들살이 다녀왔다. 한명도 빠짐 없이 전원 참석 38명

하반기 들살이 일정이 늦어져서 교사회도 아마들도 날씨가 추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잘 놀았다. 날씨 또한 걱정보다 따뜻해서 다행이었다. 두꺼운 옷이랑 준비물이 많아 질 것을 걱정하여 하루 전날 미리 옷 가방을 터전으로 준비한 부분이 당일 날 진행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 챙긴 물건에서 빠진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할 수 있는 하루의 여유가 있어서 아마 입장에서든 여유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1박 2일의 일정은 이러했다

- 첫째날 출발 10시 30분
- 도착 11시 30분
- 점심 12시
- 동내 구경 1시30분
- 뗏목타기 2시 30분 후 3시경(도담방은 상황에 따라 낮잠과 목쉬기를 유도)
- 뗏목 나루터에서 오후 간식
- 저녁 5시
- (피터팬 샘이 승급 교육으로 4시 20분경 대구로 출발 저녁은 한식 뷔페)
- 6시경 숙소로 이동
- 저녁 자유 놀이시간 : 불꽃 놀이

대동놀이 자유 놀이

- 7시 저녁 간식 가래떡
- 7시 30분~ 8시 30분 잠잘 준비(양치, 세면, 옷 갈아입기)
- 8시 30분 개실 마을과 관련된 옛 이야기 듣고 취침.

둘째날 기상 7시~8시 사이

- 아침 식사 8시 30분
- 자유 놀이 9시 30분 ~11시
- 옛만들기 체험 11시
- 점심 12시
- 짐정리 및 자유 놀이 1~2시
- 대구 출발 2시
- 터전 도착 3시

1일날 10시 30분 출발한 버스는 한시간 가량 걸렸고 가는 시간이 지루 하지 않게 두런 두런 얘기도 해가며 노래도 부르며 갔다. 영현이는 차에 타면서 벌써 졸려 하더니 가는 동안 한숨 자고 일어났다^^

11시 30분쯤 도착한 개실 마을은 고즈넉한 기와집들이 운치를 자아냈고 우리가 머물 곳은 새로 지은 기와집이라 실내도 깨끗하고 넓은 마당이 있어 아이들 놀기에 좋았다. 마당 앞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서 여자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갔다. 마당 한가운데 큰 우물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우물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당부도 했더니 큰 걱정은 없었다.


집을 풀고 아마들이 준비해주신 점심을 넓은 안방서 함께 나누어 먹고 간식도 각자

준비한 것들이 많아 먹고 남은 간식은 뗏목 타고 먹을 수 있게 준비했다. 점심 후 모두 함께 개실 마을 문화 해설가분과 설명 들으며 동네를 한 바퀴 둘러 보았다. 개실 마을의 유래, 싸움 소, 누런 들판, 돌담 넘어 오래된 기와집 마당 풍경, 여러 종류의 조류와 가축들, 동네 한바퀴를 돌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뗏목 타는 나루터로 출발...도담방은 아이들 상황을 보고 함께 하거나 숙소로 이동하여 낮잠을 자거나 몸쉬기를 하자고 교사들과 공유 했으나 도담방 아이들이 형님들 뗏목 타러 가니 몸쉬기가 유도 되지 않고 함께 하길 원했다. 길게 이어진 시냇가는 뗏목 타기에 안성맞춤 이었다. 물 수심 또한 깊지 않아 위험하지는 않았고 뗏목도 3개나 준비되어 있어서 힘든 기다림 없이 충분이 탈 수 있었다. 모두들 2~3번을 돌아가며 탔다. 도담방은 먼저 탄 후 시냇가 옆 정각에서 간식을 나눠먹으며 쉬었다. 연령이 높은 남자 아이들은 직접 뗏목을 운전해 봤고 기다리는 아이는 돌에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 돌을 주으며 기다리기도 했다. 뗏목 후 간식을 먹고 식당으로 출발. 개실 마을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는 한식 뷔페였고 반찬이 다양하고 양이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피곤하여 충분히 즐기지 못 한 듯 했다. 특히 어린 연령은 식사 하다가 졸기도 했다. 숙소로 돌아와 자유놀이, 몸쉬기 하다가 불꽃놀이, 별보기, 대동 놀이 하며 까만 시골 저녁을 보냈다. 7시경 저녁 간식 가래떡을 남김 없이 다 먹고 열심히 놀아도 아직 초저녁.^^ 추운 밤공기에 모두들 방으로 들어와 씻고 정리하고 잠잘 준비를 했다. 도담방은 넓은 안방 2개 옆에 작은 방에 따로 잠자리가 마련되어 아이들이 쉬기에 좋았다. 8시 30분 넓은 안방에서 옛이야기가 진행되고 도담방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전체적으로 잠들 때 힘 듦 없이 모두 편안하게 잠들었고 도담방 또한 특별히 힘들어 하는 아이 없이 잠들었다. 고령 개실 마을의 밤이 깊어 가는 동안 뛰엄 뛰엄 엄마 아빠를 찾

는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일찍 취침한 아이들은 이른 아침 6시 30분~7경에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가 동네를 산책하러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지만 아침 시간은 후다닥 지나갔다. 8시 30분경 아침을 먹고 개실 마을에 있는 동굴을 찾아 가보기 출발. 도담방은 남아 넓은 마당서 과일 먹으며 자유놀이를 했다. 동굴이 가는 길이 멀고 어른이 가기도 위험하다는 동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을 돌아와 개실 마을 공터서 그네 타기 외출 타기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 놀이를 자유롭게 경험했다. 11시에 옛만들기 체험이 있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일대일로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몇 분 계시지 않아 충분하고 재밌는 경험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아이들은 옛만들기 보다 쌀가루로 장난치기 옛 먹기에 더 관심이 많아서 아쉬움은 교사의 생각인듯^^ 숙소로 돌아와 나비가 준비해 주신 점심을 먹고 짐정리 후 터전으로 출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4,5세 들은 거의 잠이 들었고 6,7세 들은 아직도 남은 에너지로 쉽게 수다 떨었다. 4시경 도착하여 전체적으로 몸쉬기를 좀 하고 간단한 간식 후 우리들이 만든 엿을 한 봉지씩 가방에 넣고 하원했다.

들살이에서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함께 즐겨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하반기 들살이여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들살이의 의미를 즐긴 듯 하여 다행이었다. 일정이나 개실 마을의 전통 체험 등의 아쉬움이 남았지만 다음을 준비 할 때 더 나은 들살이를 위한 좋은 경험이 되었을 듯합니다. 

## 비밀 언덕과 덜 핀 개나리

오현석(씩씩한 오은준 아빠)

홍보소위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조합장과 해바라기 이사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힘드셨을 장범,장민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물론 폐를 끼치는 일인건 알지만 11월 28일 수요일 늦은 저녁.....장범, 장민네에 모였다.

홍보소위 아마들과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장범,장민부가 직접 답으신 보리음료수(?) 한 잔 썩을 마시고, 조금 얼굴이 상기 될 때쯤 장범,장민부(장범부로 칭함)에게 물었다.

“혹시 다시 태어나도 장범,장민모(장범모로 칭함)와 결혼하실래요?”

표정에 변화없이 수초간의 정적이 흐르자

장범모: “난 당신 답 듣고 이야기 할 꺼야.”

장범부: “난 작년에도 안한다고 말했는데...”

장범모: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들어?”

장범부: “알면서~~~”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장범부는 몇 년 전 장범모께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사실 힘든면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는 아이들이 많이 커서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장범모가 집안일에 신경 좀 쓰고, 정리정돈 좀 잘하고, 시간

개념만 지키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만일 한 번 더 이사직을 장범모가 한다 해도 무리는 없을것 같다고 하셨다. 장범모가 이사를 맡으면 우선 청소가 없어서 편하기도 하고, 장범모가 나간 이사회 3번중 1번쯤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도 있어서 문제없다며 웃으신다. 장범모는 아빠가 가사일이나 아이들에 관한 일도 먼저 보이면 보이는 대로 서로 서로 나누어서 하고 요즘에는 김치도 담아주고,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 중이라 야채스프도 만들어 준다며 사랑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보며 말씀하셨다. 그러던 중 지오엄마가 우리 남편은 집에 와서 요리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라며 눈 끝을 올리며 지오아빠를 쳐다 보자 장범모가 지오아빠면 아무것도 안해줘도 난 불만 없겠다~라고 속삭이자 엄마들 모두 고개를 끄덕 끄덕 하신다. 역시 공동육아도 비주얼 앞서는 바람 앞의 촛불이구나.

장범부에게 40대가 넘어가면서 현재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되냐고 물었다. 근래에는 너무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진 것 같고, 항상 머리에 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머리를 아프게 한다며 사회인으로써의 면모를 보여 주셨다.

우리가 모이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인 아이들 이야기로 넘어가면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아서 나의 받아 적기 실력과 기억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장범모가 여러 질문을 아울러 대답해주신 것을 적어 보았다.

“해바라기와 씩씩한은 기본적으로 학부형이나 아니냐의 차이가 상당하다. 인지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한글을 못쓰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첫날 알림장을 쓰라고 하니 고민과 스트레스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 사실 나도 첫날에 알림장을 쓰라고 해서 용납하기 힘들었다. 강요한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분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상황을 헤쳐 나가는 힘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다.

의외로 해바라기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용한 편인듯 하고, 학교외에 다른 공간에서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기도 한다. 아마

도 터전에서 아이들이 욕구를 많이 분출해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아이들이 산만하고 정신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보다는 집중력을 보이기도 하고 몰입도도 강해 호불호가 강하기도 하다. 학교를 보내고 나니 씩씩한이 더욱더 위대해 보인다. 정말 뿌듯한 느낌이다. 보통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일례를 보면 보통의 아이들은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장난이 심하면 ‘누가 누가 싫어 짝궁하기 싫어’라고 말한다. 장범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을 때 ‘나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싫는데 그 친구가 이것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관계형성을 위해 나아갈 바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대견했다. 성적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부모의 관점이 그런 것 아닌가 싶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세와 정서적안정감이 아이의 자존감에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에겐 거기에 강점이 있다. 해바라기 부모로써 학교를 보는 시각이 정립되고 나니 공동 육아를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 이 현실 속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고민도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게릴라 인터뷰 공식질문!

**하나, 공동육아란?**

장범부에게 “공동육아란 기다림이다”  
 기나긴 회의도, 방모임도, 회의간 마누라도,  
 그리고 더 놀다가 가겠다는 아이들까지...  
 기다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죠~  
 장범모에게 “공동육아란 목마름이다”  
 끊임 없이 아이들과 육아에 대해 생각하고  
 결국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

를 느끼게 되죠.

**둘,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

장범부에게 장범모는 “덜 핀 개나리”다.  
 만개하지 않아 아직도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향하고 있어 더욱 가능성을 가진 봉오리 같은 사람이다.

장범모에게 장범부는 “비빌 언덕”이다.

다른 누구보다 마음 놓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고, 당신 아니면 누가 나를 받아 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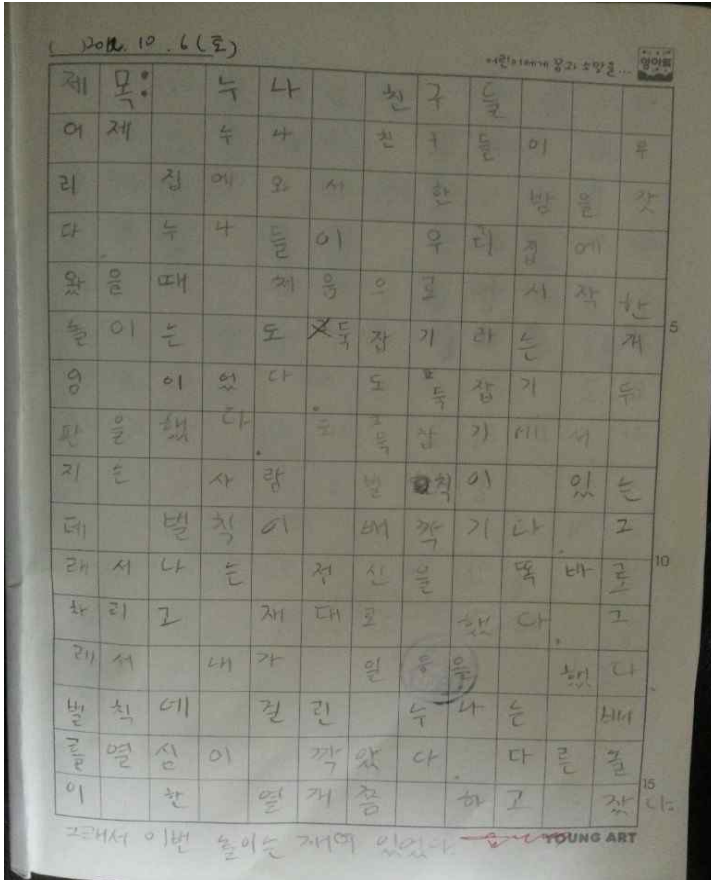
두 분과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두 분의 웃고 있는 모습이 뇌리에서 각인되어 한참을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서로에게 영원한 종신보험이 되자고 했던 마지막 이야기를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히**



# 누나 친구들

(해바라기 김동현 일기)

김동현(해바라기 1학년)



어제 누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한밤을 잤다.  
 누나들이 우리집에 왔을때 처음으로 시작한 놀이는 도둑잡기라는 게임이었다.  
 도둑잡기 두 판을 했다.  
 도둑잡기에서 지는 사람 벌칙이 있는데 벌칙이 배깎기다.  
 그래서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했다.  
 그래서 내가 일등을 했다.  
 벌칙에 걸린 누나는 배를 열심히 깎았다.  
 다른 놀이를 한 열 개쯤 하고 잤다.  
 그래서 이번 놀이는 재미있었다. **ㅎ**

# 편집후기

## 오현석[오은준아빠]

일년에 마지막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홍보소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소위 여러분 내년도 한번 더 할까요? ㅋㅋ

## 이욱희 [김지호엄마]

올해의 마지막 소식지를 정리하며~ 공동 육아 2년차로써의 또 한해도 정리를 해봅니다.

3년차인 내년엔 올해와는 또 다른 한해를 보내게 되겠지요...처음의 그 새로움은 아니겠지만..약간은 익숙한 약간은 편안한 그렇지만 뭔가 또 다른 새로움이 있는 한해를 또 꿈꾸어 봅니다.

올 한해 동안 부족한 소식지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려운 글청탁에도 마다 하지 않으시고 써주신 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를 함께 해준 터전 선생님들, 아마들, 아이들 모두 사랑합니다~~~

## 김덕춘 [최재욱엄마]

또 한해가 가네요.

소식지 편집! 참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누구 하더라도 다 바쁜 와중에 하는 일이고, 그 와중에도 꼼꼼히 해야겠으나 항상 쫓기듯 작업하여 귀한 소식지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 피해의식 생기기도 ㅋ

1년 동안 홍보소위분들 넘 고생많으셨구요 특히 홍보이사님, 편집장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올해는 꼭 올 집에서 홍보소위 모임 함 해야지 했는데 못 지켜서 아쉽.

본의 아니게 멀리 떨어져 소원해진 터전

식구들! 그래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입째 지게 웃는 2013 맞으시길 바랍니다. ♥♥♥

## 신미정 [김동현엄마]

동현이의 일기를 날적이 톡아보기에 신계 되었다.

홍보소위 회의 때 권유 받아 그러겠노라 했지만, 동현이가 허락할지 내심 걱정되었다. 다행히도 지난달 실린 하민이의 일기를 내밀며 협상하자 동현이도 싫지 않은지 “엄마가 알아서 해” 했다, 야호~.

이거 실을까 저거 실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다가 동현이의 생활이 잘 보이는 최신 일기로 결정!

동현이 글씨와 고쳐 쓴 데까지 잘 보이게 나오면 좋겠다.

## 이미지 [정강민엄마]

저녁을 먹는 등 마는 등 아이 데리고 터전으로 뛰어오는 일이 다반사였고, 아이들 노는 소리를 비집고 회의하고, 참 귀찮은 일들이었지만 의미 있고 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도모하기에 가능했겠지요. 올 한해는 신입 조합원으로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여러 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박지영[한서준엄마]

해바라기 등원과 2번의 입학 그리고 이사까지 정신없는 한해였다. 여러 조합원 덕분에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다들 올 한해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씩해**

###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제95호

- 발행일 2012년 12월 1일
-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 발행인 변영숙
-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오현석, 이옥희, 김덕춘, 신미정, 황성원  
장순향, 김미재, 이미지, 박지영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우)706-220
- 전화 053-791-6879
-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